

미리보는 리우 올림픽...차세대 스포츠 스타 총출동

참가 엔트리 마감...대회 빛낼 선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여할 전 세계 스포츠 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총 21개 종목에서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이 벌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파견과 함께 금메달 25개를 목표로 종합 3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3일 마감되는 전체 출전 엔트리에 손연재(리듬체조), 양학선(기체체조), 이용대(배드민턴), 기보배(양궁) 등 국민스타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효자종목인 태권도와 골프 역시 내년 올림픽 무대를 겨냥한 신예 스타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골든 라인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48%가 유니버시아드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이번 U대회 역시 내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차세대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 셋빌 이다예=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는 그 이름만으로도 광주U대회 최고 스타이자 흥행 보증수표다.

오빠부대는 기본이고, 삼촌 부대의 가세로 대한민국 '국민 여동생'으로 떠오른 손연재는 참가대회마다 화려한 개인기로 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발목부상으로 지난날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불참했으나, 대한체조협회 우수선수 추천으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국민여동생 손연재 출전

양학선 '양2' 성공 포부

이용대 고향 화순서 스매싱

광주여대 선후배

기보배·최미선 신궁 대결

손연재와 동갑내기인 이다예도 개인전 종목별로 자연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리듬체조계의 셋빌이다. 163cm의 키에 몸무게 42kg의 이다예는 손연재와 같은 94년 생으로 지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과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팀경기 은메달을 수상했다.

◇'도마의 신' 양학선과 비밀병기 '양2'=기체 체조 남자 도마의 신으로 불리는 양학선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천초-광주체중-광주체고를 졸업한 광주의 아들이다.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이후 한 번도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양학선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선 허벅지 부상으로 은메달에 머무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고향 광주에서 국가 대표로 나서는 양학선의 각오는 남다르다. 양학선은 비장의 카드인 '양1(도마를 앞으로 짚고 세 바퀴 비트는 기술)'에 이어 신 비밀병기이자 아직 국제대회에서는 제대로 입증된 적이 없는 '양2(도마를 옆으로 짚어 3바



손연재 양학선 이용대 기보배

퀴 반 비트는 기술, 이상 난도 6.4)를 곁에서 성공해 보이겠다는 포부다.

◇'배드민턴 황태자' 이용대 컴백=화순이 낳은 한국 배드민턴 남자 복식계의 간판스타 이용대는 지난 2013 카잔 U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현재 경기대 대학원에 몸담고 있는 이용대는 화순초-화순중-화순실고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이용대는 지난해 도핑규정 위반으로 잠시 슬럼프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징계가 풀린 이후 심기일전에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U대회 배드민턴 경기가 자신의 고향인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금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훈련장도 지난 2012년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으로 완공된 '이용대 체육관'으로 예정돼 화려한 금빛 스매싱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여대 선후배간 금빛과녁 대결=광주여대 출신의 미녀 신궁 기보배가 금빛 과녁을 노리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초·중·고교를 경기도 안양에서 다

녔지만 2006년 광주여대에 입학한 이후 광주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는 기보배는 제2의 고향 광주에서 반드시 금빛 사냥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스타인 기보배의 뒤를 잇는 신예 스타 최미선의 활약도 기대된다.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1학년 재학중인 최미선은 무안군 일로 출신으로 전남체고를 졸업했으며 국내외 대회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다.

◇태권 중주국 금빛 발차기=태권도 대표팀은 지난 2013 카잔U대회에서 양궁과 함께 선택 종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4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한국팀의 의욕도 그 어느 대회보다 강하다.

태권도 겨루기 부문의 -87kg 개인전 국가대표인 인교돈은 지난 2011 중국U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 U대회를 통해 2연패에 도전하는 금메달 유력 후보다. 그는 지난해 악성 종양 림프암 진단을 받고도 항암치료를 이겨낸 의지의 사나이이다. 태권도 품새 부문에서는 아시아청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조선대 배종범이 금빛 발차기를 예고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숫자로 보는 광주U대회

1. 호남에서 첫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 1997무주동계U대회는 겨울 스포츠 종목에 한정됐다.
2.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첫번째 대회는 지난 2003년 대구에서 열렸다.
3. 70개 경기시설(경기장·훈련장) 중 신축하는 경기장 수 3개. (수영장·다목적 체육관·양궁장) 이 중 광주지역 내 시설은 45개, 전남·북 시설은 25개 다.
50. '육상' 종목에 걸린 금메달 숫자 50개. 7월 8일부터 5일간 열릴 육상 경기에는 남·여 각각 2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630. 광주U대회 국내 성화 봉송 구간 수. 성화는 6월 4일부터 22일간 전국 17개 시·도와 60여개 시·군·구, 그리고 10개 주요 대학을 거쳐 7월 3일 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 40,245. 주경기장(월드컵경기장) 관람석 수는 40,245개로. 주경기장에서는 개 폐회식을 비롯해 육상 경기가 펼쳐진다.

광주U대회 선수총장

임덕호 前 한양대 총장 위촉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총장에 임덕호(61) 전 한양대 총장이 위촉됐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조직위에서 광주U대회 선수총장 위촉식을 하고 임 전 총장에게 선수총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광주U대회 선수총장은 대내외 업무와 공식행사 등을 총괄하고 대회기간에는 대표단장 회의를 주재한다.

광주 출신인 임 선수총장은 제13대 한양대 총장(2011~2015년)과 한양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택학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총은 오는 26일 개촌식을 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U대회 성화 도심 질주 무등산 장봉재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각각 체화돼 활화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가 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선보였다. 남도 판소리 문화재인 이순자 씨가 성화를 들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분수대 주변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北 미녀 응원단 광주서도 볼 수 있을까

최근 남북 정세 악화로 참가 가능성 이상기류

흥행 보증 수표로 꼽히는 북한 미녀 응원단의 참가 여부도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 3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광주U대회 참가를 알리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8개 종목, 108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4월 10일 광주에서 열린 U대회 대표단장(HOD) 사전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대회 참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남북문제는 국제 정세 등에 따라 대회 직전에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그동안 북한 응원단 등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 망됐지만, 최근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예년처럼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6·15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대회 개최가 한달이나 남은 만큼 북한 응원단 및 선수단의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광주 U대회 조직위의 설명이다.

북한응원단이 처음 국내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때다. 당시 북한은 300여명의 여성 응원단을 파견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미녀 응원단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파견했으며, 2005 인천아시안게임선수권대회에도 100여명의 응원단이 참가해 뉴스의 중심에 섰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조선대학교 기숙사 일부를 북한응원단 숙소로 준비중이며, 각종 안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덕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